"북한을 상대로 꼭 이겨보고 싶다"

윤덕여 감독, 동아시안컵 여자축구 출사표
EAFF E-1 챔피언십 23명 선수 명단 발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윤덕여 감독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에서 열린 2017 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대회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윤덕여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참가를 앞두고 각오를 다졌다.

윤 감독은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EAFF E-1 챔피언십에 나서는 23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기존의 동아시안컵에서 E-1컵으로 명칭이 변경된 대회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북한 등 4개국이 참가한다.

윤 감독에게는 3번째 동아시안컵이다. 여자대표팀 감독 부임 후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올해 대회까지 세번째다.

"첫 대회에서는 3위를 했고 2015년에는 2위를 했다. 순서대로라면 이번에 우승을 해야 하는데 냉정히 봤을 땐 쉽지 않다. 일본과의 1차전이 관건이 될 것이다"고 짚었다.

특히, 북한을 상대로 꼭 이겨보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4월 북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항상 어려운 경기였다. 체력적인 부담도 크다. 하지만 경기를 해봤기에 나와 선수들 모두 잘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이겨보고 싶다."

▲ 선수 선발 배경은.

"지난 4월 시작한 WK리그가 어제 끝났다. 나와 우리 모든 코칭스태프가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동안 선수들을 주시하며 상태를 체크했다. 가장 중요한 건 경기력이라고 생각했다. 팬들에게 사랑받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 외적으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이번 대회 목표는

"내가 여자 대표팀 감독 부임 후 2013년과 2015년 그리고 이번 대회까지 세 번째 대회를 맞이했다. 3위, 2위를 차례대로 했다. 순서대로 하면 우승이 당연히 목표다. 나와 선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당연히 임할 것이다.냉정하게 현실을 보면 물론 쉽지만은 않은 목표다. 특히 일본과의 1차전 결과가 중요하다. 1차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이 한국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 하지만 팬들이 요구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팬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

▲ 지난 4월 평양 원정 멤버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북한은 강팀이다. 하지만 늘 패한다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 승리가 목표다. 세대 교체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회는 결과도 가져와야 한다. 지난 4월에 함께했던 선수들이 대다수 뽑혔다. 어린 선수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

▲ 지소연이 참가할 수 없는데.

"지소연은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다. 이번에 함께 할 수 없어서 고민이 많다. 지소연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상황과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면도 있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 중이다. 그동안 선수들의 좋았던 점을 생각하고, 같은 파트너로서 좋은 역할을 했던 이민아를 활용해 전술적인 변화를 꾀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4-1-4-1에서 한 선수의 공백을 수비 쪽에서 메울 수 있는 4-2-3-1 전술도 준비하고 있다."

▲ 북한과의 경기가 가장 관심사다.

"지난 4월에 하고 다시 맞붙게 됐다. 늘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체력을 추구하는 축구를 한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힘든 경기가 예상된다. 그동안 북한과 여러 차례 해봤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겨보지 못했다. 이번에는 꼭 이겨보고 싶다. 최선을 다해 좋은 역사를 만들어보겠다."

/뉴시스

강민호, 굿바이 롯데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총액 80억원 FA 계약 체결

삼성 라이온즈가 21일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32)와 계약기간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40억원, 연봉 총액 40억원)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 라이온즈가 21일 국가대표 포수 강민호(32)와 계약기간 4년, 총액 80억원(계약금 40억원, 연봉 총액 40억원)으로 FA 계약을 체결했다.

KBO리그에서 14시즌 동안 1495경기에 출전해 통산 타율 0.277(4853타수 1345안타)에 218홈런 778타점을 기록했다. 포수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기록의 가치는 더욱 높다.

삼성은 리빌딩을 기조로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며 성장을 꾀하고 있다. 재도약의 중심을 잡아줄 주력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포지션의 중요도와 경험, 실력을 두루 갖춘 강민호를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계약을 마친 강민호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팀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다. 나의 미래 가치를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다가온 삼성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동안 응원해주신 롯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로 삼성 팬들에게도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민호는 각급 국제대회에 참가, 국가대표 포수로서 입지를 다졌다. 특히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 2009 WBC 준우승, 2010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한국야구의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다.

강민호는 30일 오후 2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입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뉴시스

숙명여고 최민주, 전체 1순위로 KEB하나은행 입단

숙명여고 최민주(19)가 여자프로농구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전체 1순위로 부천 KEB하나은행 유니폼을 입게 됐다.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2017~2018 WKBL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가장 빠른 순번으로 KEB하나은행의 부름을 받았다.

176cm의 포워드 최민주는 올해 17경기에 출전, 평균 10.4점 10.5리바운드 2.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빠르고 득점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2순위 지명권을 가진 인천 신한은행은 이은지(20)를 선발했다. 한림성심대 2학년에 재학 중인 176cm의 가드다.

올해 17경기에서 평균 12.1점 6리바운드 2.1어시스트를 올렸다.

숙명여고에서 전체 1순위 최민주와 한솥밥을 먹은 김지은(18)은 3순위로 구리 KDB생명의 선택을 받았다. 이어 기전여고 임주리(18)는 네 번째로 청주 KB국민은행에 입단했다.

눈길을 끈 재일동포 4세 황미우(26)는 5순위로 용인 삼성생명의 선택을 받았다. 아산 우리은행은 1라운드 마지막 6순위에서 광주대 김진희(20)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은 등록을 마치면 바로 코트에 설 수 있다.

/뉴시스

레드벨벳 정규 2집 '퍼펙트 벨벳' 음반차트 1위

대세 걸그룹 '레드벨벳(Red Velvet)'의 정규 2집 '퍼펙트 벨벳'이 인기몰이 중이다.

2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매된 '퍼펙트 벨벳'은 한터차트, 신나라레코드 등 국내 음반 차트에서 일간 1위를 차지했다.

발매 전 선주문 수량만 10만1414장을 기록했던 앨범이다.

켄지(Kenzie), 히치하이커(Hitchhiker), 더 스테레오타입스(The Stereotypes), 디즈(DEEZ) 등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번 앨범에는 총 9곡이 실렸다.

이와 함께 타이틀 곡 '피카부'는 음원 공개 이후 벅스뮤직 1위를 비롯해 각종 음원차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레드벨벳은 이날 SBS MTV '더쇼'를 비롯해 '피카부' 활동을 이어간다.

/뉴시스

'김생민의 영수증' 정규 편성 확정… 26일 첫 방송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KBS 2TV를 통해 방송된 예능프로그램 '김생민의 영수증'(연출 안상은)이 정규 편성됐다.

21일 KBS에 따르면, '김생민의 영수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첫 방송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1회당 70분 분량으로 10회 시즌제로 구성되고, 정규 방송 외에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스페셜 방송도 전파를 탈 예정이다.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의 코너 중 하나였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모아 지난 8~10월 15분 분량 파일럿 프로그램 형식으로 KBS 2TV에서 방송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상파에 진출해서도 화제를 모아 정규 편성에 성공했다.

/뉴시스